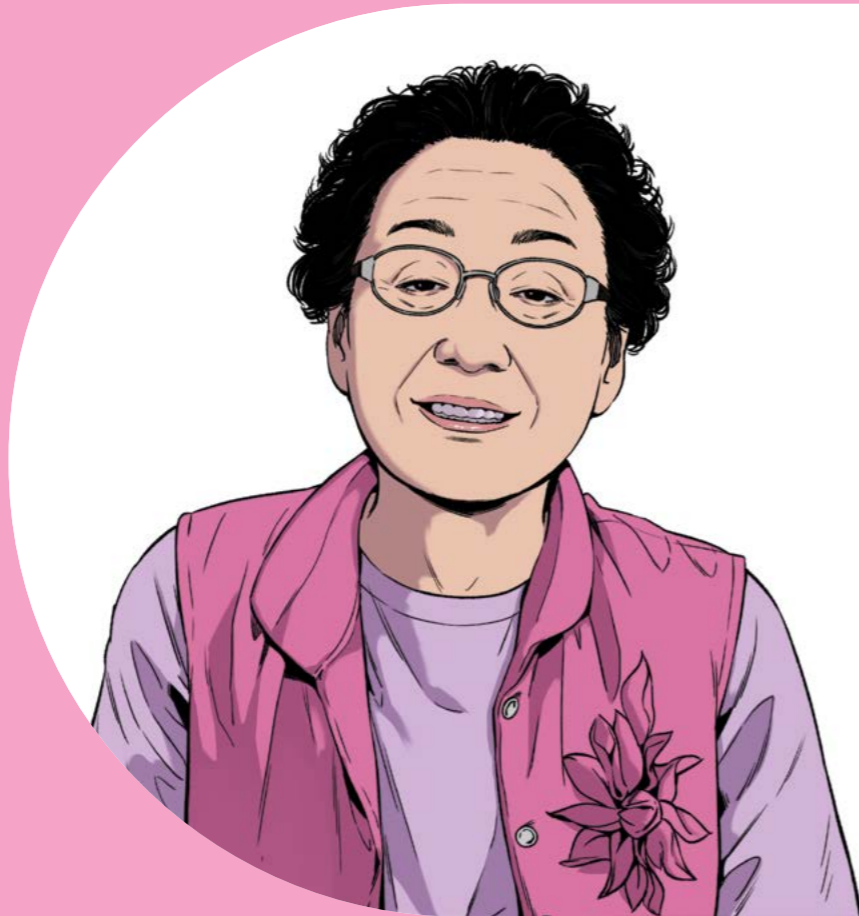


고인선 (가명)

삼교대 끝나면 녹초가 되어도
일하기 싫다는 생각보다
내 할일이다 했지



삼교대 끝나면 녹초가 되어도 일하기 싫다는 생각보다 내 할일이다 했지

생애 개요

1935년생인 고인선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유복한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열네 살에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났다. 아들을 그토록 바라셨던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다. 그런 행복도 잠시, 열다섯 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을 넘기신 어머니와 갓 육개월 된 남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이 되었다. 농사지을 땅이 있기는 했으나 여자 둘이 농사를 짓기는 버거웠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인부를 부리려면 돈이 필요했다.

열아홉 살 때, 전남방직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몇 번이나 헛걸음을 했다. 입사를 포기할 즈음, 6·25 때 집에 피란을 왔던 전남방직 병원장네 식모 아가씨를 통해 구인 소식을 접하고 달려가서 시험을 쳤다. 대학 합격자 명단처럼 회사 정문에 붙은 입사자 명단에 '고인선'이라는 이름이 딱 하니 쓰여 있었다. 어렵게 입사한 기쁨도 잠시, 방직회사 업무는 코피를 쏟을 만큼 무척 고된 일이었다. 그렇지만 오로지 가족을 위해 숨먼지와 씨름하며 열심히 일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양동시장에 들러 인부들을 먹일 반찬거리를 사 들고 집으로 갔다.

힘든 회사 일을 끝내고 쉬 때면 친하게 지낸 동생이 찾아와 나란히 누워 놀던 시간은 지금도 미소를 자아낼 만큼 행복했다. 육개월 정도 양재학원에 등록하여 재봉을 배우기도 했다. 스물두 살 때, 사촌 형부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기숙사에 살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이년 후, 첫 아이를 가지고 만삭 때까지 교대근무를 하다가 퇴사했다. 이로써 전남방직과 인연이 끝난 줄 알았지만,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생활고 때문에 재입사했다. 기혼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훨씬 월급이 적은 임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지라 그저 감지덕지했다. 오히려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자식들을 부양하고 교육시키며 겪었던 생활고가 전남방직 근무보다 더 힘들었다.

가족들은 "그렇게 몸 바쳐 뒷바라지해준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고고를 인정해주며 고마워한다. 평생 자신을 거쳐간 인생의 파도에 성실하게 임했던 고인선은 여든일곱 나이에도 쉬지 않고 소일거리 삼아 일주일에 사흘은 노인 일자리로 일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나만 생각을 하고

내 고향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고씨들이 모여 살던 어느 집성촌이여. 윗대 할아버지 때 부터 문중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는 자작일촌²⁸. 형제는 삼남매인데 위로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 나 여덟 살 때인가 열한 살 차이 나는 언니가 시집 가불고, 한 열다섯 살 까지 행복하게 살았어. 언니가 시집가고 나서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만 생각을 하고, 옷도 예쁘게 입혀서 아주, 학교 가면 옷 잘 입는다고 막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말하면 웃고 막 하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어.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국민학교를 많이 안 보냈어. 나는 늦은 나이지만 학교에 보내주셔서 광주대 근처 금당동에 있는 효덕국민 학교까지 한참 걸어 다녔어. 같은 학년이어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때는 나이 차이가 막 많았어.

국민학교 삼학년 되던 열네 살 때 십이월에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나서 그토록 아들을 바랐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이듬해 유월에 동생이 아직 아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마도 아버지가 오래 사셨다면 학교를 더 다녔을랑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울 엄니하고 나하고 동생을 키웠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동생은 어리지, 어머니는 이제 오십이 넘으셨지. 그때는 오십이 넘으면 징허게(매우) 늙은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가장이 되어갔고 서이 식구가 산디.

열여섯 살 때 삼월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유월에 6·25 전쟁이 났네. 6·25 당시 우리 집이 지대가 높았거든. 비행기가, 아조 갈매기 날아 오대끼 무등산 있는 디서 몇 대가 막 날아와갔고 광주 시내에다가 막 이렇게 내려가고 다 때려. 광주 시내 여기저기 폭격을 아조 다 때려 부렸어. 우리 동네는 어디로 피란 안 갔어. 처음에는 그냥 거가 있다가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 근처 산으로 피란 가서 쪼까 있다가는, “아이고. 죽어도 집에 가 죽자” 하고 집으로 다시 왔어. 나중에 시골 쪽 얘기를 들은께, 구례나 화순 같은 데서는 낮에 경찰들이 성가시게 하고 밤에 인민군들이 와서 뭘 내놓으라 하고 그랬다드마. 우리 동네는 요 시내가 가까운께, 군인들이고, 인민군들이고 한나 성가시게 한 사람이 없어. 아, 근처 과수원에 인민군 부대가 있던 있었어. 어느 날은 밤에 인민군들이 와갔고 우리 동네 애들한테 노래를 갈쳐 준다고, 해서

28 自作一村. 한집안끼리 또는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한 마을을 이룸.

보니까 여기 군인들하고 똑같더라고. 하나 무섭도 안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군인(국군)들이 막 (공격)헌께는, (인민군들이) 도망갔던 갑이여. 그냥 시골 어디로 다 막 부대가 가불더라고. 으드로 간고 했더니. 막 그때 이제 철수한 거지. 그 인민군들이 북한까지 다 못 가고 어디서 다 죽었을 것이야. 지금 생각헌께, 똑같은 우리 한국인들이다. 6·25 때, 여 광주 시내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피난을 많이 왔어. 우리 집이 아무래도 시골집이라 사랑채도 있고 터가 넓었는데 어떤 부잣집이 우리 집으로 피란을 와서 작은 방에서 한 두어 달 살았어. 시내 사는 부자여서 그런가 전쟁 중에도 먹고 사는 것이 아주 그냥 지글지글지글 해 먹고 순 쌀밥만 해 먹고 그러고 살더라고.

몇번을 허탕을 치고 어렵사리 들어간 전남방직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일본 사람 소작농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농사 지어갔고 한 절반 정도를 내야 돼. 옛날에는 우리 논이 두 마지기가 있었거든. 그 논이 비만 오면 논둑이 무너져서 자갈이 다 들어와 버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니가 그놈 소쿠리에다 자갈을 담아서 이리 저리 힘들게 퍼냈어. 이제 농사를 못 짓고 논을 내놔야. 누가 지으라고 내놓으면은 그 집에서 지어갔고 절반을 나눠 먹지. 그러면 그 절반에서 또 세를 내야 하는데 못 내. 여자만 있으니 농사를 못 짓고 논²⁹을 사서 부려야 해. 그때는 농사만 지어갔고는 못살지. 돈이 있어야 농사도 지어. 그래갖고 돈 벌어서 농사지으려고 내가 방직회사에 들어갔다니께. 내가 돈을 벌어야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 그때는 남자들도 돈 벌 데가 별로 없었어. 그래도 여기 전남방직이 광주 시내에서는 월급이 제일로 쟤지.

우리 사촌 오빠가 전남방직 병원에서 진료 보는 원장을 알았던 가봐.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봐라” 하면서 소개를 해 주더라고. 그래갖고 가봤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안 쓴다고. 사람 쓰면 연락해 준다고, 봉선동서 임동까지 걸어서 거까지 가면은 또 안 쓰고. 뭐 몇월 달에 쓴다고 그러면 또 오고 그러다가, 맨날 갔었지. 한 일년을 한두 달 있다가 또 가고. 이제 사람 쓴가 하고 또 가봤지. 근데 이제 한 번은 간께 6·25 전쟁 때 우리 집으로 피란 왔던 부잣집에서 식모를

29 일꾼. 품팔이.

하던 아가씨가 그 집 식모로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반가웠지. “방직회사에서 사람을 구한가 해서 와 봤어요” 하고. 그때도 허탕을 치고 몇번을 가도 모집을 안 한다고 해. 한창 보리타작을 할 때라 바쁘고 그러니까 “에이, 이제 안 가버려야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식모 아가씨가 방직회사에서 직접 우리집까지 왔어. “방직회사에서 사람을 쓰니까 몇월 몇날 와라” 하고, 그래갖고 갔어. 면접시험이랑 필기시험을 봤는데 무슨 ‘세계 오대양을 써라’ 이런 문제였어. 그리고 체력시험도 보니까 내가 몸이 약해서 조금 걱정을 했거든. 어떻게 문제를 다 맞추서 합격했다고 정문애다 딱 내 이름 써놨더라고. 그때 제일 좋더라고. 내 나이 열아홉 살, 그때부터 일해서 돈 벌어다가 농사 밭천 대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살았지. 그 일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랑가 모르지. 동네에서는 내가 “집안을 위해 일한다”고 다들 기특하게 생각해줬어.

솜과의 전쟁, 정방

방직회사는 정방, 권사, 직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 내가 현 디는 일본말로 세이보라고, 한국말로 정방³⁰이라 해. 앞에서 제일 처음에 솜을 터는 데, 혼타멘³¹이라고 해. 한참 솜을 터는 놈이 좀 굵게 나와. 그것을 감는 류멘³²이라고 있어, 그 다음이 렌조³³라고 솜을 펴줘. 그 솜에서 실을 빼는 단계가 정방이야. 나 막 들어갔을 때는 바로 일을 한 건 아니고 작업장 청소를 하고 다녔어. 방직회사도 인공 때 폭탄이 때려부러갔고 다 부서져서 옛날에 식당이었던 데다 불탄 기계를 놔갖고 했었어. 옛날 기계가 다 녹아버린 데다 식당이라 천정이 알아가지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 죠시³⁴가 안 좋아갖고 실이 막 범벅이 돼서 잘 떨어져. 그때 제일 힘들었지. 막 코피가 쪽쪽쪽 나고 막 땀때기가 엄청 큰 놈이 나고. 겨울에도 더워. 그러니까 흠, 한 꺾딱짜리 옷 입고 해야지. 일도 힘든데 식당밥은 입에 안 맞아갖고 잘 안 먹

30 꼬임을 주어 실의 강력을 높이는 공정. 精紡. せいぼう.

31 혼타멘. 원면을 혼합하고 이물질 제거하는 공정. 混打綿, こんだめん.

32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캔에 담는 공정. 梳綿. りゅうめん.

33 섬유를 균일하게 늘려 펴는 공정. 練糸. れんじょう.

34 상태. 調子. ちょうし.

게 되더라고. 그래서 빼빼 말랐었어.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집이 농사를 짓는다 그래 갖고 막 참았지. 그러다가 한 일년 있다가 새로 공장을 짓는다고 막 그러더라고. 식당에서 청소하고는, 신공장으로 가갖고는 이제 실 빼는 거 했지. 공기가 좋으니까 죠시도 좋지. 죠시가 좋으면 실이 안 떨어지고 그래.



고인선은 입사한 후 정방 공정에서 일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조장이 휘파람을 불며 야단을 쳤다. 일러스트 송하용

우리 다음이 실을 감는 권사, 그 다음이 천을 짜는 직포야. 권사나 직포 공정은 그래도 편한데 우리 정방 일한 사람이 제일 되었어. 제일로 여름에 덥고 더러워. 처음에 막 들어가면 되어서(힘들어서) 아주 숨도 못 쉬어. 그래도 한번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끝장 지어야 돼. 기술

이 딱 그것이라 거기서 해야지. 다이³⁵를 보면서 실 빼는 것을 다이모찌라고 해. 한 사람이 담당하는 다이가 얼마나 기냐면, (아파트 바깥을 가리키며)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저쪽 끄트머리만큼 길어. 다이 사이 사이에서 일을 해. 이렇게 양쪽으로 해갖고 한 여덟 명이 실을 잊어 주고, 막 그런 일이었어. 위에 있는 솜에서 실을 빼서 아래쪽 다마³⁶에 실이 감아져. 다마가 몇 개나 됐는지는 너무 많아서 다 세지도 못해. 다이를 보면서 중간에 실이 떨어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막 형클어져. 그럼 얼른얼른 꼬아갖고 잊어야 하는데, 여기저기 사방에서 실이 떨어지면 실 범벅이 되어 그냥 난리가 나버리지. 끊어진 걸 빨리 안 이으면 안에서 먼지가 지거든. 속으로 손을 넣어서 미영 가리³⁷가 안 붙게 빼줘야 해. 이제 여기 요놈이 싹 차면은 뺄 빼갖고, 이만한 통에다 담아갖고, 막 갖고 가버려. 그러면 그놈이 이제 또 여기서 새로 감아져. 실을 감은 다마를 빼놓으면 남자들이 실 실어다가 저기 권사로 갖다 주고, 권사에서 이제 이렇게 감아주면 이제 직포로, 베 짜는 데로 가져가. 남자들이 기계 같은 거 기름도 주고 고장 나면 고치는 거 했어. 조장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휘가락(휘파람)을 훑 불어갖고 어쩐다 저쩐다 미마와리³⁸를 해. 다른 공정은 실이 끊기면 딱 기계가 끊어버리는데 우리 한 데는 계속 돌아만 가니까 조금만 늦어도 실이 막막 형클어져. 그러면 조장이 휘가락을 불고 그러면 이 놈을 가서 잊어 주는 사람이 있어. 실이 떨어져갖고 실 범벅이 나오면 조장에게 지청구를 들어. 조장 언니한테 예쁨 받으려면 일을 잘해야 해. 조금만 잘못하면 휘가락 불어서 다오라 해갖고 주임이라는 사람한테, 그때는 오하나시³⁹라 했어. 군대처럼 이려고 서서 지청구 들어야 돼. 그때는 조장들이 얼마나 썼다고, 이때 제일 잘 나가던 조장 언니가 나중에 계모임에서 계장을 하고 있더라고.

처음 들어가면 여덟 명에서 실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가 차면 실 끊어진 거 이어주러 다니고 다마 빼는 것을 하다가 거기서 더 올라가면 조장을 해. 나는 다마 빼는 것까지 하다가 조장까지 못 올라가고 얘기 가져갖고 나왔어. 어떤 사람은, 나보다는 꽤 언니야. 그런데 자기

35 작업 기계. だい.

36 실 감는 도구. 玉. たま.

37 솜먼지

38 순찰. 見回り.

39 말쑤. お話. おはなし.

이름 쓸 줄도 몰라. 글씨는 몰라도 똑똑해갖고 일을 잘했나 봐. 그래갖고 배가 찬게 조장을 했어. 우리끼리 밤에 잠 오면 잠 깨게 웃기려고 종이에 '나는 바보요'라고 적어다가 조장 등거리에다 붙여. 아니면 조장이 왔다 갔다 하는 바닥에 써놔. 그래도 조장이 글씨를 모르니까 전혀 몰라. 만약 우리가 그런 줄 알았으면 가만 안 놔뒀을 거야. (웃음)

실이 끊어지면서 범벅이 되면 솜처럼 멍쳐. 실을 이어주면서 나온 솜을 앞치마에다가 막 담고 해갖고는 한데 모아서 다시 실 있는 데 그놈 이용해. 내가 처음에 청소만 한 것처럼 실 빼는 사람들 말고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근무자는 거의 여자들이었어. 현장에 여자들이 한 열 명이면 남자는 두 명도 안 됐을 거야. 현장에는 얼마 없고 사무직 쪽에 더 많았어. 지금 생각하면 거그 다닌 남자들이 다른 데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이라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디 다닌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안 했나 몰라. 회사에서 남자들에게 사택도 해줘 갖고 좋았을 건데.

근무는 삼교대 할 때 있고 이교대 할 때 있고 그러거든. 삼교대 하면 A반, B반, C반으로 나눠서 아침 일곱시부터 해갖고 오후 네시엔가 끝나. 또 오후 네시에 들어가면 밤 한시에 나오고, 한시에 들어가면 아침 일곱시에 나와. 삼교대 하면 그래도 할 만한데, 이교대를 하면 저녁 일곱시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한시쯤 밥을 먹고 일하다가 아침 일곱시에 나오면 겁나게 피곤했어. 쉬는 시간이 없어. 기계가 계속 돌아가. 중간에 밥 먹는 시간에만 잠깐 쉬고 하루 종일 일했어. 너무 졸리면 잠 안 오게 한다고 막 약 사 먹고 그랬어. 야간에 일할 때 어찌다가 전기가 딱 나가면 이때다 싶어서 그냥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잠을 자. 낮에 잠 안 자고 일하려면 막 잠이 오니까. 그때는 마스크도 없었고, 직포 같은 데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 정방은 미영 가리를 막 먹으니까 폐결핵 걸린 사람도 있었어. 나는 그렇게 미영 가리를 많이 먹었어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어. (웃음)

중방 큰애기 멋지다고 반하지 말라

근방 양동이나 발산 같은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통근하고 나처럼 집이 먼 사람들은 기숙사에서 살았어.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들은 보성이나 영광 같은 어디 먼 데서도 많이들 왔어. 통근하면은 이제 기숙사비랑 밥값이 안 빠지니까 월급이 더 많아.

기숙사 방마다 한 열 명 정도 살았어, 방에 들어가면 양쪽 벽에 물건이나 이불을 넣어 놓는 벽장이, 자기 벽장이 하나씩 있어. 다섯 명씩 이쪽저쪽으로 누워서 벽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해. 실장 언니가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자고, 신입이 막 들어오면 제일 구석에 걸레나 청소 도구 있는 데서 자. 그러다 빈자리가 나면 자리를 점점 옮겨 가. 실장 언니는 아주 엄하고 무서웠어.

아침에 일어나라고 방송 노래가 흘러나와. 그러면 일어나갔고 세수하고 밥 먹으러 가고. 기숙사는 공장에서 좀 멀었어. 걸어서 한 십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식당도 좀 멀었고. 기숙사에서 나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공장 가려면 바빠. 기숙사에 있을 때는 세탁소에서 작업복과 모자를 빨아갖고 풀 뺏뺏하니 먹어서 다려. 그놈으로 동그라니 주름을 잡아야 모자가 예뻐.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했어.

회사 안에는 기숙사 말고도 세탁소나 공부하는 도서관도 있고 양재학원도 있었는데, 나 양재학원 다녔어. 다른 사람은 그냥 어찌저찌 노는데 나는 남은 시간에 요만치도 안 놀고 그 시간에 그러고 오고 그랬다니까. 우리 방에서는 나 혼자만 다녔어. 그 양재학원은 한 육개월 다녀갔고 베에다가 자를 대고 그려갖고 미싱으로 박아서 곤색⁴⁰ 천으로 내 것 우아래 잠바, 스커트 해 입고 블라우스 해 입고 소풍도 갔어. 결혼해갖고도 우리 남편 것 와이셔츠도 해주고 우리 딸 것, 수 뇌갖고 베이비복 만들었어.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나면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난 시간을 전혀 놀지를 안 하고. 일요일 날만 쉬었는데 외출할 일 있으면 기숙사 사감실에서 외출증을 써갖고 정문에 관리실 같은 곳에 비추고 나갔어. 밖에 안 나가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도 하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안 믿어도 예수 노래는 다 알고 그래.

우리 방에 식구 하나가 연애하느라고 맨날 외출 멍기고 나가드만, 군인하고 연애했더라고. 만나던 군인하고 결혼했는가 몰라. 개 말고는 다 암전했어.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순하고. 막 돈 쓰고 안 다녀. 일 끝나면 시집가면 한다고 수 놓고 그랬어.

‘종방 큰애기 멋지다고 반하지 말라’는 노래가 있었어. 옛날에는 방직회사를 종방⁴¹이라고 했거든. 그때는 한복만 입고 멍겼지. 돈을 버니까, 근방에 옷집이 없고 벵집에서 베를 팔아.

암전한 사람도 거기서 베를 떼다가 맡겨갖고 풀 먹여서 옷을 해 입으면 아주 옷 태가 짝짝 흘러. 종방에 다닌다 하면 막 연애한다고 안 좋게 생각했어. 누구는 거기 들어간다 헌께 “거기 들어가면 전부 연애한다”고 지 아버지가 절대 못 가게 해서 안 갔대. 지금 생각하면 들어가서 돈 벌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은 힘들어도 한 번 들어오면 나간 사람은 별로 없었어. 짝 빼입고 밖에 나가면 자기들은 못 들어간게 우리들 좋아 봐라 했어. 그 당시는 시험도 치고 누구 소개로 왔다는 뺨도 있어야 돼. 나도 식모 도움으로 들어가서 돈 벌고 나중에 동네 사람 하나 넣어 주구 그랬어. 나 일헌 데는 아니고 초방이라고 다른 데.

그때는 기숙사 생활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가 한창 젊을 때고 친구들과 여럿이 사는 게 재미졌어. 거기서 서로 언니 동생 삼아갖고 친하게 지낸 동생이 있었는데 성이 박가여. 나보다는 한 덧 살 차이 날 거여. 그 동생은 C반이고 나는 A반이었는데, 기숙사 방이 달랐어. 내가 야간근무를 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동생이 오전 근무를 하고 시간이 맞을 때 우리 방에 놀러 와. 그냥 내 팔을 베어 주고 옆에 누워서 같이 자고 외출도 나가고, 그런 것이 재미있었지. 여자들끼리라도 남녀 간에 연애한 놈같이, 꼭 동성연애하는 것 같이 서로 옷도 해주고 겁나게 생각하고 그랬어. 한 방 식구 중에 동갑짜리 친구랑도 친했고, 또 나이가 두 살 아랫가 어린 동생이 나를 언니로 생각해서 시기를 하더라고.(웃음) 그것(박가 동생)이 자리 오면은 막 시기를 해. 그래갖고 막 내 빨래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재미있었지. 샘이 많았던 그 동생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살고 있는가 모르겠어. 박가 동생하고는 그 후로도 즈이 집도 가고 우리 집에도 가고 하면서 만나면 겁나게 재미있었어. 서로 어머니 옷도 해주고, 나 결혼 해갖고 살 때도 찾아와서 우리 남편에게 “형부, 형부” 하면서 찾아 다니더니만, 그 동생이 어디 공무원하고 결혼 해갖고 양동에서 삼시롱(살면서) 아기 낳고 나서도 우리 집에 멍기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방직회사 다닐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그 동생이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 “나는 장남 며느리고 제사 지내야 해서 못 간다” 그랬더니 발길을 딱 끊어버려. 그래도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딱 끊어버리는구나. 만약에 그 동생이 이 책을 본다면 “오매, 우리 언니다” 할 것이여.

40 검색

41 일제 강점기 때 전남방직의 전신인 종연방직을 줄여서 부르는 말.



전남방직 기숙사에는 한 방당 열 명 정도의 여공들이 살았다. 고인선은 성이 박가이고 몇 살 차이나는 이와 언니 동생하며 지냈고 여자들끼리 연애하는 것처럼 서로 생각했다. 일러스트 송하용

맛난 거 사먹고 극장도 가보고 했으면 좋았을 걸

오래 돼서 월급은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계좌가 어디 있어? 그냥 월급 타러 가면 장부에서 결근한 거 있나 확인하고 다 빼고 돈을 봉투에 담아서 줬어. 보너스도 없고 데모하고 그런 것도 없고, 우선 돈 버니까 고마워갖고 불만도 안 샀어. 불만 사 봤자 자기만 돈을 못 벌지. 내가 관두고 나온 뒤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데모를 해가지고 노조가 생겨갖고 보너스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그랬다더라고. 그때는 광주에 극장이 몇 군데 있었거든. 극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휴일이면 광주극장, 동방극장 같은 데 많이 갔는데 나는 안 다녔

어. 영화 보거나 옷 해 입고 짝 꾸미고 외출 나가서 산동교나 비아 같은 데로 놀러도 가고 그러면, 나는 놀러도 안 가고 월급 받으면 다른 데 안 쓰고 우리 가족들 먹고살고. 쉬는 날이면 농사지을 농 먹일 반찬, 시장 봐갖고 집에 가고 그랬다고. 돈은 다 엄니 주고. 열아홉 살에 회사 들어가서 스물두 살에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했어. 요새 아가씨들도 그렇게 살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 맛난 것도 사 먹고 극장도 가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저 집에 가서 밥만 먹으면 될 줄 알고, 생전 군것질할 생각도 없었어.

보너스는 없었지만 월급 말고도 매달 광목을 열 마씩 줬어. (양팔을 펼쳐 보이며) 한 마가 이만씩 할 거여. (누르스름한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광목 색깔이 요렇게 생겼지. 그 당시 세탁소가 겁나게 크게, 빨래도 하고 삶기도 하고 다린 것도 있고 다 있었어. 거기 가서 광목 이놈을 삶아갖고 둘이서 짝 펴서 널어서 햇볕에다 말려서 바래. 물 묻히고 바래고 삶아갖고 바래고, 그러면 하얗게 깨끗해져. 그때는 옷을 파는 가게가 없을 때라 광목으로 옷을 해 입으면 좋았어. 하얗게 색을 내서 저고리나 치마 해 입고 친척들 옷도 해주고. 보신⁴²을 신고 땡긴끼, 시집가면 열 켈레 스무 켈레씩 해갖고 가거든. 그리고 시누가 시집가면 쓰라고 주기도 하고. 작업복을 위에 것은 회사에서 줬는가 모르겠네. 청바지 색깔 같은 거. 아래는 우리들이 몸빼⁴³로 해 입었어. 월급날 받은 광목에 검정 물을 들여갖고, 허리에 고무줄 넣어갖고 평평했어.

방직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동생 명의로 땅을 사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걱정 없이 살게 해놨어. “누님이 나 얘기 때부터 키워 줬으니까”라고 동생이 지금도 나를 아주 분명히 생각해. 얼마 전에도 잠깐 들러서 용돈을 쥐어주고 가더라고.

장남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다들 가난해서 집에 돈 벌어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결혼을 빨리 안 했어. 우리집 아랫집서 사촌 언니가 살았거든. 스물두 살 때 사촌 형부가 어디 회사를 다녔제. “내가 우리 사

⁴² ‘버선’의 방언

⁴³ 통이 넓고 발목을 묶게 된 일본식 옷으로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

촌 처제 중매한다” 해갖고 같은 회사 다니던 남편을 소개해줬어. 나는 처음에 우리 집을 더 도와줘야 한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사람과 결혼했어. (웃음) 사실 그때 내 생각이, 장남 며느리 자리는 안 가고 싶고 너무 강한 사람한테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지대. 안 하고 싶어도 해지대. (웃음)

남편은 장남인 데다 고집이 얼마나 센가 내가 못 이겨.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장남은 다 그런다’ 하고 내가 다 할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도 싫은 생각이 없었어. 남편은 6·25 때 가서 싸운 사람이야. 제주도에서 훈련하는데 급식 배달하다 배가 고파갓고 돼지고기 동동 뜬 놈, 비계 한 덩어리 주서 먹었대. 그래갖고 밥을 안 줘볼고 별주고 그래가지고 봄동 뜯어 먹고 그랬다대. 그래갖고 강원도에 가서 싸웠지. 그래서 참전 유공자라고 돌아가시고 나서 전라북도 임실에 묘지가 있어.

결혼해갖고도 나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 우리 집 양반은 우리 집에서 아직 어린 처남하고 장모하고 같이 살았어. 나 대신 울 어머니가 사우(사위) 밥을 해주고 그러고 살았어. 내가 돈 벌어도 하나도 안 쓰고 남편한테 바치고 필요할 때 타서 썼어. 착실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믿고 다 맡겨 버렸어. 스물두 살에 결혼해서 스물네 살까지 애기가 없더라고. 스물네 살 때 애기가 생겼어. 그래갖고 뭘 못 먹어. 자꾸 토하고 그랬어. 애기 배갖고도 그대로 다녔어. 만삭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교대근무를 하니라 겁나게 힘들었지.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친정으로 갔어. 열흘 동안 진통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애기를 받아줬지. 그래갖고 그놈 애기 키우고, 둘째 배갖고 낳았어.

어디 별 데가 없으니 다시 방직공장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직업이 없으니까 힘들어. 그래갖고 애기 둘 낳고 한 이년 있다가 내가 방직회사 임시직으로 다시 일하러 들어갔어. 원래 전남방직 사장이 한 명은 이북 사람이거든, 김형남이라고. 근데 뒤에 애기 낳고 간게 전남방직하고 일신방직으로 갈라져 버렸더라고. 전남방직에서 임시직 모집한다고 해서 경험자로 들어갔어.

갔더니 그때 같이 다마 빼는 일하던 친구들이 높아져서 전남방직 쪽에 가서 막 조장이라고 휘가락 불고 다니더라고. 내가 그 밑에서 일했지. 임시는 월급이 푹 떨어져 버려. 본 거시

기(정규직)로 다니면 백만 원 나온다 하면 임시는 한 칠십만이나 됐을까. 결혼 해갖고 나오면 인기가 없어. 그래도 사회에서는 그 돈을 못 벌어. 어디 가서 별 데가 없어. 그놈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기숙사에 안 사니까 밥값은 빠지지 않았어. 그때 우리 친정 어머니 고생 많이 시켰다. 어머니가 젓떼기 애기 둘 그놈 키워주고, 나 밥해 주고 사우 밥해 주고.

우리 집이 옛날 남구청 바로 그 옆이었어. 옛날에 남구청이면 철뚝 넘어서 안 동네로 쪽 들어가거든. 거기서 임동까지 걸어서 다녔어. 아침 일곱시 출근하려면 새벽 네시에 교회 종소리 나면 깨갖고, 일어나갖고 우리 어머니가 밥해 주면 다섯시에는 나가야 돼. 아주 그냥, 진짜 한하고(계속) 가도 가도 끝이 안 나와. 그때는 버스도 없었잖아. 학동에서 충장로 어디로 가는 거 하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임동에서 나가서 양동시장 쪽으로 올라가면 공원으로 지나서 대성국민학교 지나서 까치고개를 지나서 백운동 넘어가갖고 철뚝 넘어가갖고 그 동네로 간디 얼마나 멀겠어. 힘들어갖고 사람 없는 디서 울고 싶었어. 그래갖고 한 네시까지 일을 삼교대 일하고 끝나면, 그때 이제 우리 집 가면 아주 녹초가 돼, 아주 죽기 직전이야. 아무리 젊더라도 대성국민학교 넘어가면 막 포도시 걸어가. 어쩔 때는 눈이 펑펑 내려갖고 다리가 푹푹 빠질 때도 있었어. 그래도 하나도 일하기 싫단 생각은 없었어. 그것이 내 할 일이라고 그러고 했지. 그저 일을 시켜주는 게 감사해서 불평할 줄도 몰랐어. 갈라지고 나서는 임시로 다닌게는, 일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게 두 회사끼리 어쩐가 아무것도 몰랐어. 기숙사에 있고 해야 뭐가 어찌고 돌아간 지 알지.

그러다가 광천동에 집을 얻어갖고 이사갔지. 그리 이사 가갖고도 거기서 다녔어. 요즘 같으면 아들이 며느리랑 산디 내 몸 하나 가서 얹혀산다고 하면 며느리가 겁나게 부담 느끼지. 근데 임시로 들어가서 월급도 적고 한디, 시골에서 시부모님 시동생 둘 해서 네 식구가 올라와서 합해 브렸어. 그런게 얼마나 뭇이 많이 들어간가 생활이 곤란해. 내 월급 죄까 받는 여자 일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 야간근무 때는 집안일 하다가 잠을 안 자고 출근을 하면 막 살을 잡아 뜯어도 잠이 와. 그러다 날이 새고 저기 창문에 하늘이 보이면 신기하게 잠이 딱 화딱 깨. (웃음) 매일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려니 차라리 기숙사 살 때가 좋았어.

일을 다니다가 셋째가 생겼어. 첫째 때처럼 애기 배갖고 삼교대 할 때 퇴근하고 새벽 한시에 집에 오면 식구들이 자느라고 문을 열른 안 끌려줘서 서러울 때도 있고. 그래도 잠 죄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리쌀로 밥해야지. 식구들 먹여야 하니까. 일하다가 아기가 나

오려고 허거니(허영계) 바람이 있잖아, 우리 때는 바람이라고 했는데, 양수가 터졌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 낳으러 집에 갔어. 그때는 시어머니가 와 계실 때라 시어머니가 아기를 받아줬지.



임신한 몸으로 삼교대를 마치고 새벽 한시에 퇴근하고 돌아올 때 잠자던 가족들이 알아채지 못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서러울 때도 있었다.
일러스트 송하용

그 후, 방직공장 힘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고

셋째 낳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수발해야지. 자식들과 시동생 둘에다 시골 살던 시댁 친척들까지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녀서 다 챙기느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여덟 개씩 짰어. 많은 식구들 수발하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우리 애기들 커 버리니까 정신없이 살았어. 방직회사를 관두고 나서는 식당일을 오래 했어. 건물 지는 디, 그런 디 밥을

다 해주고. 지금은 생수도 나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서 집에서 물을 다 끓여갖고 얼음 넣고 식혀갖고.

나 유문동서 오래 살았어, 한 십팔년. 광주일고 앞에 교보빌딩이 아직 없었을 때. 살던 데가 수창국민학교 건너편에 카도⁴⁴였거든. 그때도 식당 할 때여. 5·18이 나갔고, 군인들이 막 우둘ตุ들 총을 쏘 대서 무서웠어. 그래서 본계는 군인들이 군인 차 트럭 큰 놈을 몰고 오더니 청년들 학생들 지나가면 그냥 막, 이런 막대기로 그냥 두드라 패. 그래서 쓰러지면 차에다 싣고 가고. 우리 집 옆에가 학원도 있었거든.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구경한게, 이쪽은 유문동이 고 저쪽은 북동이거든. 도망가는 사람을 막 쫓아가서 그놈 때려잡아갖고 와서 싣고 가고, 그때 으이 징했어. 탁탁 때려갖고 그냥 탁 실어가 불고, 상무대 어디로 싣고 가 불고. 열 며칠인가 문을 닫고 완전히 방송이고 전화고 싹 끊어져 브렸어. 뭐가 어떻게 돌아간 지도 모르고, 그랬네.

금남로에는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닌게 누가 어쩔 수가 없었어. 나중에 어쩐다 해갖고 군인들을 어디로 쫓아내 불고, 여기 시민들이 차를 타고 막대기를 들고 찍음서 뭘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러고 땡겼어. 그러고 땡기다가 어디 우에서 총을 쏘면 죽고 그랬다고 해. 그때는 전부 나가면 죽은게 방에만 있었어. 옆집에다 방을 얻어놓고 우리 애기들 있으라 하고 밥을 해서 담 너머로 넘겨줬어. “어디 나가면 인자 총 맞아 죽고 막 근게 나가지 마라”고 신신 당부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녀석들이 갖다 주는 밥 묵고 어디 도청 앞에 막 땡기고 구경하고 그랬더라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여가(등을 가리키며) 최루탄 이런 거에 타져갖고 왔더라고. “으미, 너 데모 하지 마라” 그런게 “우리 친구들은 다 감옥 갔어라”그러대. 나중에 서울 간게 광주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한 사십 살, 이제 그 뒤에 돈도 벌어서 집도 짓고 했는데, 또 인제 마흔아홉 될 때 우리 집 양반이 사업한다 해갖고 이제 망해볼고는, 대학생이 셋에다 고등학생 하나인데, 집도 없이 만들어 놓고는 빚만 지게 해놨어. 그때부터 육십 살까지 십 년 동안을 빚 갚아가면서 애기들 대학 다 졸업시키고. 그때 제일 고생했네, 오십 대에. 이때 고생한 거에 비하면 방직회사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돈도 하나도 못 대주고 집 하나도 못

44 모퉁이. 角.

사주고. 그래도 애기들이 다 착해. 착실하고 대학교 다 나오고, 지가 벌어서 대학원 나온 놈도 있고 회사 다니고 성공해서 잘 살고. 지금도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주고 있어. 미국을 세 번 갔다 왔어. 내 칠순 때 가고 남편 칠순 때 가고 손자 여울(혼인시킴) 때 가고. 뉴욕에 백이십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있었거든. 거기 백이십층까지 올라갔어. 남편이 생전에 이렇게 다 모아 놓고, “니기 엄마가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다 모시고, 느그들 다 대학 갈치고 했다. 느그 어머니 아니었으면 못 했다”라면서 나를 막 겁나게 세워줬거든. (웃음)

방직회사 동료들과 계모임을 꾸리고

빛을 다 갠고 육십 살에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누구를, 방직회사 사람을 하나 만났어. “오매, 어째 여가 있냐?” 그래갖고 나는 여기서 산다 어쩐다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우리 계 한다” 그래서 나도 했지. 그래서 갔더니 정방 식구들이었어. 처녀 때 친구들이니까 친했지. 아유, 여기서 사냐고 막 반갑다 하고. 여기 와서도 친해갖고 친정 식구들 만난 것 같아. 형제간 같이 그렇고.

처음에 계원이 정방 식구들 열여섯 명이었는데 이십일이 겹날이었어. 한 달에 한 번씩 이십일 날 모여갖고 꼭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겹돈 만 원 내고 식당에 가서 한 육천 원짜리 밥을 사 먹고 남으면 그놈 모아갖고 많이 모이면 나눠 쓰고 그랬어. 만나면 옛날얘기도 하고 자기 식구들, 자식 얘기도 하고. 옛날에 방직회사 다닐 때 조장하면서 열렬하게 휘가락을 불고 다니던 계장 언니도 진즉 죽어 불고, 어디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 아파갖고 빠지고. 하나씩 가더니 이제는 다섯 명이 남았어. 다섯 명이서, 계 깨지 말고 우리 중에 하나 남도록 계를 하자고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땀시 식당에 모이기가 힘들었어. 그래갖고 인제 계 깨붓당께. 다섯 명 중에 하나는 시내 살고 하나는 용봉동 살고 이 동네 식구들이 셋이 있어. 근데 둘이 아파 가지고 잘 못 걸어 다녀. 한 사람은 치매가 왔는가 집에만 있고 누구는 요양병원 가 있고. 그러니까 모임 수가 없지.

계모임 회원 중에 ○○이 부지런하고 야물어. 그 사람은 방직회사에 오래 다녀갖고 아마도 조장도 했을 거야. 가가 우리 계에서 총무를 했어. 그래갖고 작년엔가, 이제 모이자고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못 모였어. 이 동네 사는 셋이 그동안 가가 총무 하느라고 애

썼으니께 “우리 얼마씩 주자” 해갖고, 하나가 만 원 주고 또 하나가 이만 원 주고 내가 이만 원 해서 봉투에다가 담아갖고. 봉투에다 가 이름하고, 몇월 몇일 날짜까지 쓰고, 오만 원 넣어 갖고 내 가방에 넣어 놓은 지 지금 한 일 년 되었나, 갖고 다닌당께. 한번 만나자 해도 “답에 만나자고”, “쪼까 코로나 가면 만나자고” 하면서 못 만나. 내 가방에다 갖고 댕기니까 무거워 죽겠어. 개한테 “얼른 돈 가져가라” 그래야 쓰겠어. 총무하고 세 명 더 있는데 그것들이 겁나게 오래 다녔어. 나하고 제일로 친한 사람 하나 있어. 지금도 전화는 주일마다 넣는데, 만나는 지는 오래 되었어. 근데 귀가 짱 먹었더라고. 나도 이제 귀가 먹었당께. 다리는 성가시게 했어도 귀는 성가시게도 안 했는데 귀가 먹었나 몰라.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인선

방직공장에 한번 가고 싶어

나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해. 나 아픈 데가 여기저기 많아도 이렇게 걸어댕기게 해줘서. 아

버지 엄니가 건강하게 낳아 준 덕이지.

이제 늙어버려서 그런가 방직공장 구경 한번 가고 싶기도 하더라고. 요새 애기들은 들어갈 회사 많으니까 그런 일 안 헐라 그럴 거여. 그때는 가난해갖고 없어 갖고잉.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생전 뭐 어디 가서 데모하고 불만 사갖고 말을 할 데가 없었어.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그랬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식구가 먹고살 수 있었어. 요즘 뭐 해달라, 데모하는 거 보고 내가 “꼴 보기 싫다” 하면, 우리 아들은 “그런 것을 해야 한다” 해. (웃음) 한 육십까지는 일이 무서운지를 모르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무섭지, 조금만 서 있어도 아프고. 그래도 지금도 나는 몸을 그냥 놀리는 것이 싫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네. 오늘도 오전에 일하고 왔어.

만약에 새로 태어나면 애기 많이 안 나고 자와. 시집도 안 갈라면 안 가고 자퍼. (웃음) 다시 스무 살이 된다면 대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싶어. 국민학교 나왔은께 한글은 배웠지. 근데 중학교에 가서 영어나 한문 그런 거 배우고 자운디, 그럴 수가 없었어. 그때 세상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 딸이 공부를 여간 잘했어. 육백명 중에 전교 일등이었어. 나는 딸이 보기만 해도 징허니 예쁘고 그랬는디, 시어머니는 딸이 중학교 간다니까 “먼 놈의 가시내, 일이나 갈쳐서 시집보내지” 중학교 보낸다고 안 좋게 생각했어. 그래도 나는 일부러 대학까지 가르쳤어. 서울로 가서 대학 나와서 서울 머시때하고 결혼했어. 처음에는 내가 사우를 마닥했어. 결혼하지 마라 했어. “장남이고, 가난하담서. 엄마도 고생했는디, 너도 또 장남한테 가야? 가지 마야” 그래도 결혼 해가꼬 사우가 착실해서 잘 살아.

우리 딸, 지기 할머니가 중학교 가는 꼴도 안 보려고 했는데 나는 우리 손녀들에게 대학교 가라고 해. 뭐든지 배운 것이 안 배운 것보다 나은께. 뭣이든지 시간만 있으면 배워야 돼. 우리 손녀 하나가 애인이 있어. “결혼하면 애기는 몇 낳을래?” 물어 본께 애기 안 낳는다고 그래. “애기 안 낳으면 왜 결혼해야?” 했더니 그냥 산다고 해. 금께 내가 즈그 아빠한테 “참, 잘 생각했다. 요러고 고생하고 난께, 결혼한 거, 시집 식구 모신 거, 아무 거시기가 없어야” 그랬어. 요새 애기들이 잘 생각했어. 결혼 해갖고 가정을 이루고 애기 낳아서 자식 키우는 것이 재미는 있어. 그래도 요새같이 좋은 세상,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나 고생하고 했어도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 다 건강하고 예쁘고, 대학교 나오고 그런 것이 제일 오지지. 이제 다 살고 보니까 건강이 최고고, 부부간에 서로 뜻 맞게 살고, 그 거 제일 행복한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어.



2021년 12월 광주여성구술채록단과 공장을 찾아 숲길을 거닐며 오랜기억을 떠올리는 고인선(가운데 모자쓴 이) 사진 임미숙

생애연보

- 1935년(1세)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출생
- 1948년(14세) 12월 남동생 출생
- 1949년(15세) 6월 아버지 별세
- 1950년(16세) 3월 효덕국민학교 졸업. 6월 6·25 발발
- 1953년(19세) 전남방직 입사. 정방 공정 배정. 폭격 피해로 공장 옛 식당 건물에 기계를 놓고 작업. 기숙사 생활
- 1956년(22세) 장남인 남편을 만나 결혼. 기숙사 살면서 주말 부부 생활
- 1959년(25세) 출산 임박 때까지 교대 근무하다가 퇴사. 첫 아이 출산
- 1961년(27세) 둘째 아이 출산. 전남방직 임시직으로 재입사
- 1962년(28세) 셋째 아이 임신하고 출산 임박 때까지 교대근무
- 1964년(30세) 3년 정도 근무 후 퇴사
- 1965년(31세) 넷째 아이 출산. 이후 식당 일 시작
- 1970년대(40대) 주택 장만
- 1980년(46세) 5월. 광주일고 근처 유문동 식당에서 일하다가 5·18 경험
- 1983년(49세)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10년 정도 빚을 갚으며 생활고 겪음
- 1994년(60세) 오치동으로 이사 후 계모임 참여
초기 인원 정방 출신 16명
- 2020년(86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계모임 중단
마지막 계원 5명
- 2021년(현재) 월, 수, 금 오전에 노인 일자리 일 다니고 있음